

뉴제주일보

HOME > 정치/행정 > 제주도정

제주도,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추진 체계 강화

☞ 현대성 기자 | Ⓞ 승인 2021.11.18 10:17

제주특별자치도는 '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'을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.

제주도는 피해자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재설계,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운영 강화를 중심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.

제주도는 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.

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"앞으로도 새롭고 차별화된 추진시책 발굴 등을 통해 제주지역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현대성 기자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1. 11. 18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성평등정책관	보도자료 PRESS RELEASE	성평등정책관	이현숙 ☎ 710-6510
		성인지정책팀장	우수정 ☎ 710-6541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후속자료 : 없음			

도,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추진체계 강화

- ‘2021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계획’ 추진…조직문화 쇄신 도모 -
-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추진 -

- 제주특별자치도는 ‘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’을 위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.
- 제주도는 공직 내부에서부터 성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립한 ‘2021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계획’에 따른 개선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 - 중점 추진사항은 △피해자 중심의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재설계 △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△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운영 강화이다.
 - 도는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·위촉했다.
 - 앞서 도는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한 바 있다.
 - 또한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훈령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성희롱·성폭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, 2차 피해 예방 및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.
 - 이와 함께, 공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5월

붙임 :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 사진 1부. 끝.

【붙임】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 사진

